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모든 역사가 모이는 곳,
퀴어들의 도서관

퀴어락

Korea Queer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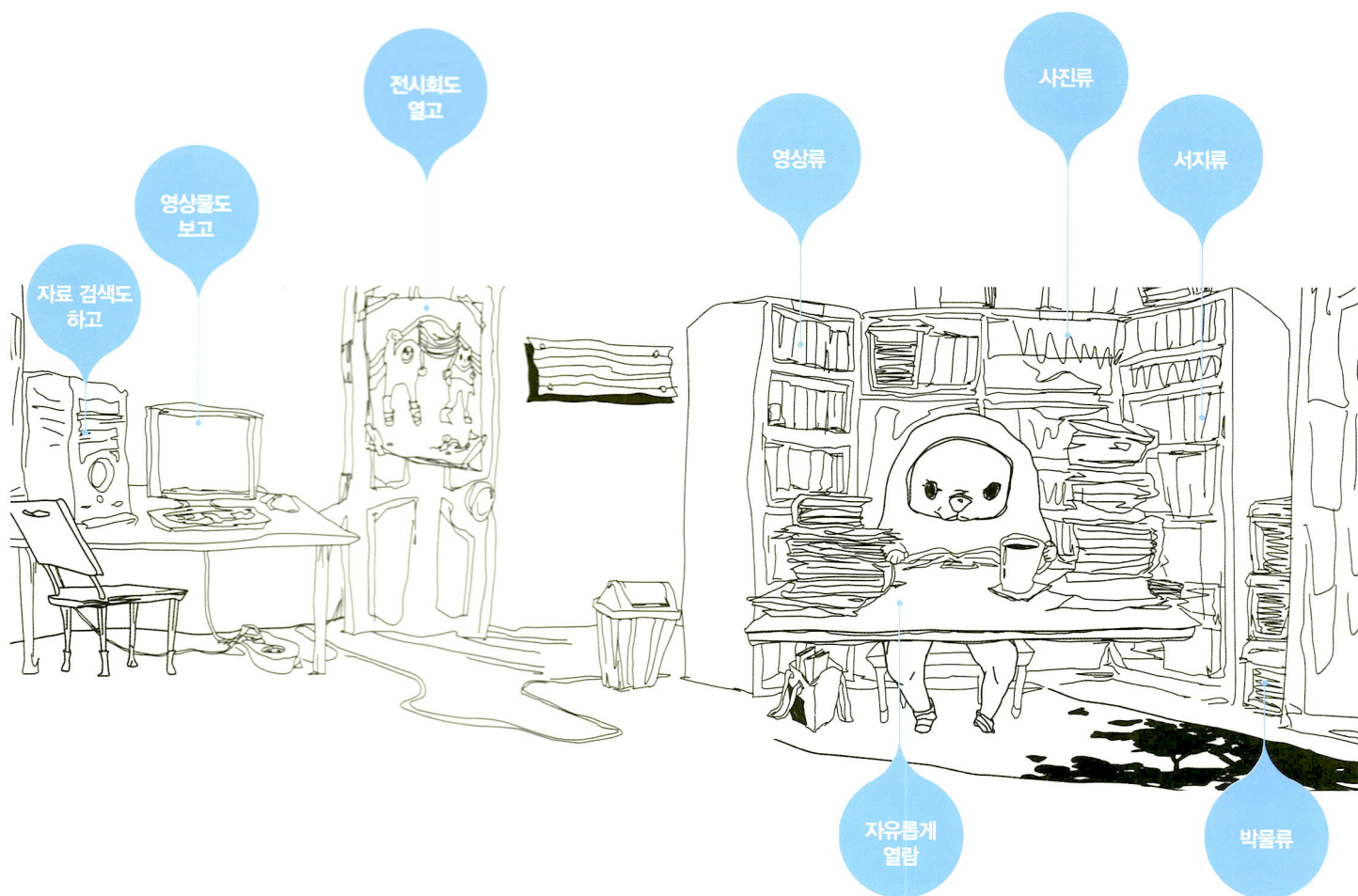
Newsletter

정기 발행을 꿈꾸는 소식지

제 0호

2015.02

Korea Queer Archive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7길 45 2층(121-820) | 전화 02-322-9074 | 홈페이지 www.queerarchive.org | 트위터 @queerarchive
이메일 queerarch1@gmail.com ★ 후원계좌 우리 1005-502-576259 (비온뒤무지개)



퀴어락에는 LGBTIAQ...와 퀴어를 다루고 있는

서지류 도서 및 논문, 잡지, 만화책부터 회의록, 자료집

박물류 포스터, 리플렛, 엽서, 버튼, 배지, 기념 셔츠에서 플래카드, 개인 일기까지

사진류 빛바랜 옛날 사진부터 jpeg 파일까지

영상류 영화, 방송, 기록 영상 등이 VHS에서 블루레이까지 다양한 형태로

독자 퀴즈

위의 그림에서 잘못된 점 하나,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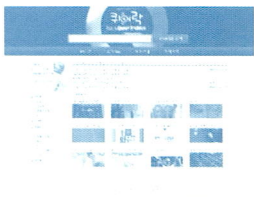
정답은 8p에

퀴어락은?



내가 모르던 퀴어 역사를 만난다?

퀴어락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모아서 쌓아 놓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인 것인지 출처를 꼼꼼하게 밝혀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관련된 자료를 한데 묶어서 소개하기도 해요.
그럼, 지금 바로 퀴어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까요? **Righ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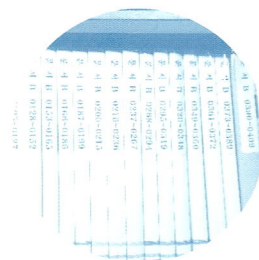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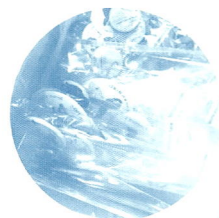


www.queerarchive.org



왜 수집하고 보관하냐구요?

사회적 소수자의 역사는 잊히기 쉽습니다.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것은 애써 기록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편이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흩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퀴어와 관련된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많지 않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소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출처나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런 경우 일반 대중, 퀴어 개개인이
찾아볼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공공의 지식으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고,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을 때
퀴어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퀴어락은 바로 퀴어의 역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의 성적 소수자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도서관인가? 박물관인가?

어떻게 보면 퀴어락은 일반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비슷하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퀴어락은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는 현재 퀴어락만이 성적 소수자에 관한 공공 아카이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시와 상영회도 해요...

퀴어락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카이브에서 갖고 있는 영상 자료로 상영회를 열기도 합니다.
퀴어락의 전시회나 상영 일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퀴어락의 트위터 계정 [@queerarchive](https://twitter.com/queerarchive)를 팔로우해 주세요!

퀴어락에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 > 옛날 자료, 외국 자료, 그리고 최신 발간된 도서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 > 나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복사할 수도 있어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 > 파일, 비디오, DVD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영상도 자체 보유 기기를 통해 감상할 수 있어요.
- > 내 방에 간직하고 있던 자료를 기증할 수도 있어요.
- > 그리고, 하나 더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퀴어락 이용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다면 퀴어락에는 아오이, BL물, 백합물을 아우르는 많은 퀴어 만화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에서 편안히 열독하실 수 있지요.

퀴어락 연혁

어떤 시간을 지나왔나

1998

동성애 전문지 <BUDDY>의 편집팀이 퀴어 관련 문서를 수집/보관 시작

2002

<BUDDY>를 계승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계속 수집/보관

2009

01.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시작
12. 서지류와 영상류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와 열람실 오픈

2010

03. 박물관을 추가 등록 시작
06. 제11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특별전시
“10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어느 커밍아웃의 이야기” 개최
07. 사진류 추가 등록 시작

2011

05. 제12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특별전시 “우리가 자부심입니다, 퀴어락” 개최
06. 퀴어락 열람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동교동으로 이전
07. 홈페이지 리뉴얼
09. 레즈비언 영화로 독해할 수 있는 김수영 감독의 <금옥> 상영회
11. 3년간의 활동을 모은 <퀴어의 기억이 기록이 되다 - 퀴어락 구축 스토리> 발간

2012

03. 대만의 동성결혼 다큐멘터리 <그저 그런 결혼피로연이 아니올시다> 상영회
06. 제13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특별전시
“우리들의 무지갯빛 발걸음: 차별금지법에서 학생인권조례까지” 개최
10. 조선 세조시대 인터섹스의 삶을 다룬 송경식 감독의 영화 <사방지> 상영회

2013

06. 제14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기념 머그컵 판매 및 종이컵 배포

2014

01. 퀴어락의 소속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옮김
06.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퀴어락 홍보

2015

01.05. 운영위원 1인이 상근 근무를 시작하고 열람실 향시 개방으로 바뀜



퀴어락 현황

기록물 등록

	서지류				영상류	박물류						사진류	총합
	학위논문	단행본	연속간행물	문서 (자료집, 회의록 등)	영상류	엑세서리	홍보인쇄물 (엽서, 팸플릿 등)	포스터	형견류 (티셔츠, 수건 등)	개인기록물	기타	사진류	
2009	69	378	330	654	595	.	.	.	.	.	.	.	2026
2010	34	80	27	103	0	64	128	50	10	0	8	500	1004
2011	0	50	11	94	25	15	59	16	4	1	9	134	418
2012	1	27	13	81	0	36	170	0	0	1	16	127	472
2013	5	59	33	101	2	6	54	24	17	2	6	55	364
2014	1	146	30	135	11	0	16	0	0	0	2	81	422
총합	110	740	444	1168	633	121	427	90	31	4	41	897	4706

공간

퀴어의 역사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퀴어락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록물을 보관하고 방문자가 열람할 수 있는 보관 및 열람실의 너비는 2m*6m, 즉 12㎡입니다.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지만 책상 12개, 캐비닛 3개, 열람용 책상 1개(그리고 무려 20박스 가량의 등록 대기 박스)가 들어가 있고 방문자가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람하고 싶다면 부담 없이 오셔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다보면 단 한 개만 수집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 복본을 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캐비닛 2개가 있고 그곳에 복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근활동가가 일을 하는 사무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충 1.5평 남짓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사실 퀴어문화축제와 사무실을 나눠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엔 책상 2개, 소중한 컴퓨터 1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스캔할 스캐너 1대, 출력할 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기 위한 기본 도구도 모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1대, DVD 플레이어 1대, DVD 및 비디오 멀티콤보 플레이어가 1대 있지요. 이 기기를 이용해서 영상물을 보기도 하고,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VHS를 DVD로 디지털이징하기도 합니다.

참, 방문자가 자료를 보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별도의 커다란 복사기도 한 대 있습니다!

기록물 보관 및 열람실

너비 12㎡, 책상 12개, 캐비닛 3개, 열람용 책상 1개

기록물 복본 등 보관

캐비닛 2개

사무실(등록 작업 등)

1.5평

(책상 2개,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DVD 플레이어 1대, DVD 및 비디오 멀티콤보 플레이어 1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복사기 1대)

퀴어락의 장기 목표

퀴어락이 가장 원하는 작업 중 하나면서 한국의 많은 퀴어 연구자, 활동가, 그리고 개인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1990년대 이전의 퀴어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 퀴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요즘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죠? 팟캐스트를 찾아보면 퀴어와 관련한 많은 인터넷 방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음원이 지금은 유통되지만 목적을 갖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혹은 누군가가 했던 연설, 발언, 강의록, 인터뷰 녹음 등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퀴어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퀴어락의 꿈엔 음원 아카이브 구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으로 오래되어 화질이 나빠지고 있는 영상물들을 디지털이징하는 것도 역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퀴어락은 수많은 기록물들을 보다 더 잘 살펴보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특정 주제별로 컬렉션을 구축하고, 전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물을 잘 파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제 컬렉션은 지금까지 퀴어의 삶과 운동의 역사에서 얼마나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수집하고 보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적극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퀴어락은 등록된 기록물이 방문자, 혹은 연구자를 기다리도록 두기보다는 기록물을 밀절미 삼아 연구, 교육, 강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퀴어락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퀴어의 삶과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 아카이브 소개

Google 에서 “LGBT archive”라고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아카이브가 나옵니다. “queer archive”라고 검색하면 우리 귀여락도 나오구요 ^^

이런 많은 세계의 아카이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학문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아카이브들도 있고, 도서관의 역사기록물 수집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LGBT 아카이브들은 자리잡고 있는 지역과 나라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귀여락도 1998년 창간한 <BUDDY>가 모태가 되었듯, 동성애자 인권단체, 출판사에서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의 One Archive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 짐 케프너(1923~1997)가 1942년부터 모아왔던 자료를 시작으로 그가 설립한 ONE Inc와 잡지 <ONE Magazine>과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LGBTQ+ 아카이브 CLGA도 동성애 신문을 펴낸 The Body Politic의 설립자들이 만들었구요. 미국 뉴욕의 The Lesbian Herstory Archive도 뉴욕대학교의 동성애 인권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카이브들은 어떤 것들을 수집, 보존할까요?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와 출판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많은 아카이브들은 각 단체문서자료,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 도서 등의 문서

기록물을 바탕으로 발전해 필름, 시청각 자료와 사진, 예술작품 등으로 수집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관련 뉴스 기사를 20만 점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The Lesbian and Gay Newsmedia Archive처럼 특화된 동성애 아카이브도 있지만 대부분은 40개 이상의 개별 문서 컬렉션과 2,000편의 포스터, 1,000편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의 동성애 아카이브 AGQ처럼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종합 아카이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아카이브들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많은 아카이브는 현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물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 11만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최대의 LGBT 아카이브인 IHLIA는 2007년부터 암스테르담 공공 도서관(OBA)과 하나가 되었고, 뉴질랜드의 LAGANZ 아카이브는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파트가 되어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ne Archive도 2010년부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도서관의 파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아카이브 본연의 수집 기능과 함께 교육, 전시 기능을 더 넓고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세계의 주요 아카이브를 소개 드립니다.



- 1 ONE National Gay & Lesbian Archives at the USC Libraries
캘리포니아, 미국 | <http://www.onearchives.org> | 1952년 설립
- 2 IHLIA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http://www.ihlia.nl> | 1978년 설립
- 3 Les Archives gaies du Québec: AGQ
퀘벡, 캐나다 | <http://www.agq.qc.ca/index.php/fr> | 1983년 설립
- 4 The Australian Lesbian and Gay Archives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 <http://alga.org.au> | 1978년 설립
- 5 Lesbian And Gay Newsmedia Archive: LAGNA
잉글랜드 런던, 영국 | <http://www.lagna.org.uk> | 1980년 설립

Korea Queer Archive Queerarch!

Korea Queer Archive Queerarch, the only public Queer Archive in Korea, was founded in 2009, by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and other individual activists. Since 2014, Queerarch has been a part of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With a strong focus on Korean contents, we collect and preserve queer related items in any medium. Our archival materials include books, films, video and audio recordings, theses and dissertations, magazines and periodicals, personal and public documents, organizational records, and photographs by and about Asexual, Bisexual, Gay, Intersex, Lesbian, Queer, and Transgender people.

For donation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queerarch1@gmail.com. As a non-profit organization, we provide free access to researchers, historians, scholar, and the general public. Before visiting the archive, please contact us via the email address.

Please understand that except special occasions, we do not accept inquiries in any other language than Korean and English.



Hours:

Monday & Wednesday & Friday: 09:30 - 16:00

Tuesday & Thursday: 13:00 - 20:00

Closed Saturday & Sunday

*please send us an email at least 3 business days before your planned visit.

Homepage

www.queerarchive.org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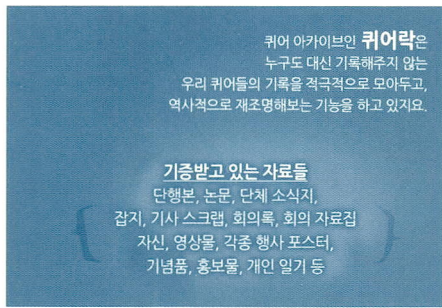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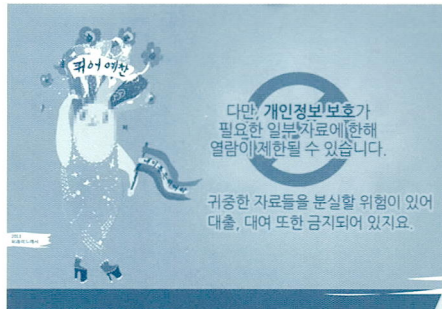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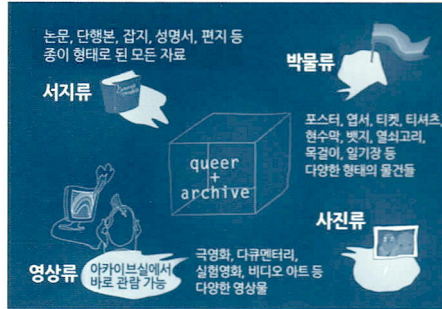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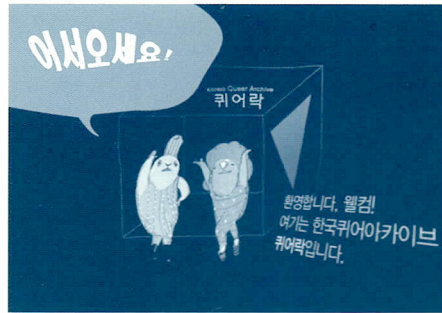
queerarch1@gmail.com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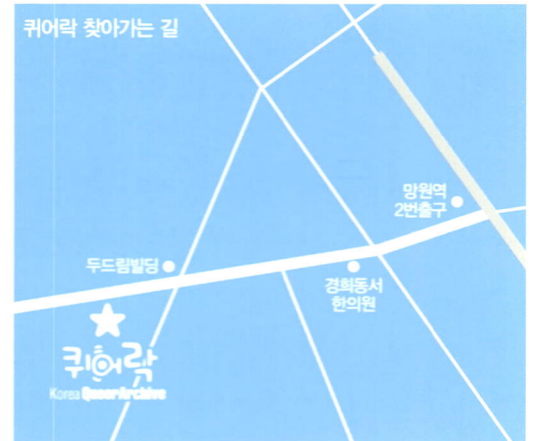
45, World Cup-ro 17-gil, Mapo-gu, Seoul (121-820)

twitter

[@queerarchive](https://twitter.com/queerarchive)



퀴어락에 찾아가 보자!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오른쪽 큰골목으로 쪽 2분 정도 직진하시면 왼편에 '수학원' 간판이 걸린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으로 오세요.

퀴어락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월·수·금요일에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화·목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려 있어요. 요일에 따라 오전에도, 늦은 저녁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퀴어락을 지키는 단 한 명뿐인 상근자가 외근 중일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방문일시를 확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세팅을 해야 하니 예약은 필수예요. 문의는 메일(queerarch1@gmail.com)이나 전화(02-322-9074)로 할 수 있습니다.

※ 개방 시간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트위터를 하시나요?

그럼 twitter: @queerarchive랑 친구해 주세요.

주목할만한 자료와 최신 등록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열람 가능한 방문 시간 확인, 그리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더 편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www.rainbowfoundation.co.kr

한국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최초의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Beyond the Rainbow Foundation

표지 퀴즈 답

- 음료컵: 원래 퀴어락 열람실에는 음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기록물 보호를 위해서요.^^
- 테이블: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에 다리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공중 부양중.